

대학생들의 사회표상 계층에 대한 부패인식

A Study of Corruption Perception of Simbol

배 정 환(Bae, Jeong Hwan)*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corruption among social classes. As well as recognition of oneself, recognition of the group and society he belongs to affects his behaviors. Thus, this study attempts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our society in the future by analyzing how college students, who are the leaders of the future generation, recognize of corruption among the social classes in society.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turned out that reliability on the social classes in society was very low, and the current anti-systems or programs in our society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Besides, it turned out that distrust in the older generation and social leadership affected college students' recognition of corruption, which indicates that careful approach to strategies for anti-corruption in the future is essential.

Key Word : 표상(symbol), 부패(corruption), 계층(social differentiation), 신뢰(confidence, trust)

1. 서론

현재 우리사회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위기라는 시대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강도와 폭과 분위기가 여느 때 같지 않다. 해방 후 새로운 형태의 국가체제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사회를 온통 뒤바꾸어 놓을 듯한 몇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예상롭지 않은 변화가 사회전체에 감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권력의 이동정도가 변화의 주체였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세대간의 갈등, 신분과 지위의 충돌 등과 같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문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변화에 대한 생각과 개념에 따라 변화의 경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갖는 개념은 각 개인의 사고 뿐만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갖는다. 이러한 자기와 관련된 인식은 행동의 선택이나 강도 그리고 지속도 등을 결정하는데 밀접히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Jourden(199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설정하는

*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목표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제에서도 자기 만족도가 높으며, 조직에서의 성취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개인의 사고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개인으로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표상,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K. Kashima, T. Ishimaru, H. Okamura, H. Suginami, K. Ikura, T. Murakami, M. Iwashita, K. Tanaka, 2004)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가운데 우리 사회표상 계층에 대한 부패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위한 미래세대의 인식 변화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부패에 대한 논의는 특정한 사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요한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렴성에 기인한 부패지수를 바탕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영향과의 관계, 부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반부패 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반부패 또는 순전성(청렴: Integrity)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 그리고 사회적 표상계층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론적인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향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투명성이나 기업 거버넌스, 공직윤리의 개선, 반부패 시스템의 강화가 미래세대에게 정확히 인식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 우리사회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사회적 표상과 부패인식

1. 사회적 표상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게

1) 실제 학술지전문검색사이트인 KSI KISS에서 부패와 청소년의 연관어로 검색하면 1994년 이후 6건이 검색되며 부패와 대학생으로 검색을 하면 4건이 검색되었다(2009년 6월 11일 현재).

전개되고 있다.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는 지속적인 변화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나름의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표상²⁾도 집단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K. Kashima, T. Ishimaru, H. Okamura, H. Suginami, K. Ikuma, T. Murakami, M. Iwashita, K. Tanaka, 2004).

특히, 개인에 초점을 둔 사회특성과 그 구성원에 대한 표상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은 독립적인 자율성을 지닌 개체로서보다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서의 역할과 관계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관계된 집단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다(유광민·김기완·김남조, 2007).

우리사회가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개인주의와는 구분되는 집단주의 문화 또는 관계주의 문화 범주에 포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사회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인식을 동질화하려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특징은 그 시대의 어떠한 인식이 장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없이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표상과 신뢰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뢰의 형성에서 '우리관계'가 중요함으로써 관계문화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신뢰관계에서 의미있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신뢰의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수양을 하는 인격자를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박영신·김의철, 2005).

그러나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표상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역할모델이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경제적 불안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변화를 위한 '관계지향 문화', '도덕성', '윤리의식' 등이 논의 되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 즉 부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정확한 연구에 기초한 바람직한 사회의 방향설정보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논의가 주를 이뤄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표상에 대한 주요한 논의는 뒤르켐(1982)의 정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뒤르켐은 "개인들의 의식 외부에 존재하는 주목할 만한 속성을 갖는 행위, 사고, 감정의 방식"이 사회적 표상이라고 정의하였다(Pearce, P.L., Moscardo, G., G.F., 1996). 사회적

2) 본 연구에서는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이나 대표로 삼을 만한 상징으로 표상(表象)을 정의하고자 한다. 표상에 대한 논의는 철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며 의미론이나 실용론, 화용론 등에서 의미하는 표상의 구체적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는 표상의 정의를 단순화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표상의 연구가 부패와 연관성을 갖는 이유는 대상에 대한 과거경험, 그 경험의 정신적 이미지 그리고 기타 기억요소가 사회에 대한 인식의 주요한 영향이 미치며 자기 행동의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표상이 미래의 행동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상은 지각과 주변 세상의 사건이나 사물을 이해하고 행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커니즘(Fredline & Faulkner, 2000)이며 사회 표상은 사회적 실체를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신념을 내포하며 합의된 세계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최순영, 1987). Moscovici는 사회적 표상을 지각자 자신의 문화적 의미와 경험을 독립적으로 지속하는 가치와 이미지 그리고 선입관의 시스템으로 정의하였으며 표상은 사회내부에서 집단에 의하여 공유되어지며, 상호 작용과 교류에 의하여 동시에 결정되어지므로 사회적 표상은 특정집단과 연계되어 질 수 있다(Fredline & Faulkner, 2000). 그리고 사회적 표상은 집단간 관계 속성에 따라 사회적 표상의 내용과 형식이 형성되고 변화되며, 사회적 표상의 제반속성에 따라 집단 간 관계의 성격이 규정되고 집단간 관계의 차후 속성을 결정한다(최순영, 1987). 이러한 집단에 대한 인식 및 특성에 대한 반응은 현재 우리 사회의 표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행동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의 사회 지도계층에 대한 인식은 미래의 개인행동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며 집단과의 관계속에서 우리 사회의 투명한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표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정책집행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재로 사회적 표상과 신뢰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Almond & Powell은 정책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상징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정부정책, 즉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집행의 순응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표상 또는 상징에 대한 미흡한 연구로 인해 사회적 갈등 또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패에 대한 인식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부패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국제투명성기구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1995년 이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산출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또한 뇌물을 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Perceptions Index)와 일반 국민들의 체감인식을 조사한 세계부패바로미터(GCB: Global Corruption Barometer)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패 인식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 부패방지에 대한 논의는 제도와 법률, 그리고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뤄 왔으며 1970년 이후 공직윤리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³⁾.

하지만 이러한 부패 인식에 대한 연구도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2001년 이후 부정기적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이를 세분화하여 사회계층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20대 30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부패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독립된 개체로서 뿐만 아니라 소속한 사회 내에서의 관계망에 의해서 정의되고, 관계구조가 개인의 사고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의 인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패 인식에 대한 논의는 개별연구자의 부패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측정 항목에서의 부패인식지수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개별적인 부패인식의 측정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사회의 특정계층이 한국사회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는 투명성이 비교적 낮고 부정부패가 많다고 어떠한 계층에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비교된 지표들과 달리, 우리사회의 계층집단은 우리사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지각하지 않는가? 부정적인 표상 외에 긍정적인 표상은 없는가? 있다면 그 계층의 긍정적 표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식의 측정은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진종순·서성아, 2007).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부분적으로 시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식연구결과(김묘성·김의철·박영신, 2002)와 민주주의 장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인 한국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윤영진·김의철·박영신, 2004), 동아시아와 북유럽인들의 공통인식에 대한 비교연구(김의철·박영신, 2005),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국인의 신뢰의식을 분석한 경험과학적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박영신·김의철(2005)의 연구들이 우리사회의 신뢰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연구들이다.

3) 학술정보데이터 검색사이트인 KIS KISS를 통하여 부패, 공직윤리 등 주요 검색어로 부정부패에 대한 검색을 시도한 결과 부패 949건, 공직윤리 53건, 부패인식 44건으로 나타났으며 부패인식에 대한 학술논문은 1995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발표된 해를 기준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III. 부패인식에 대한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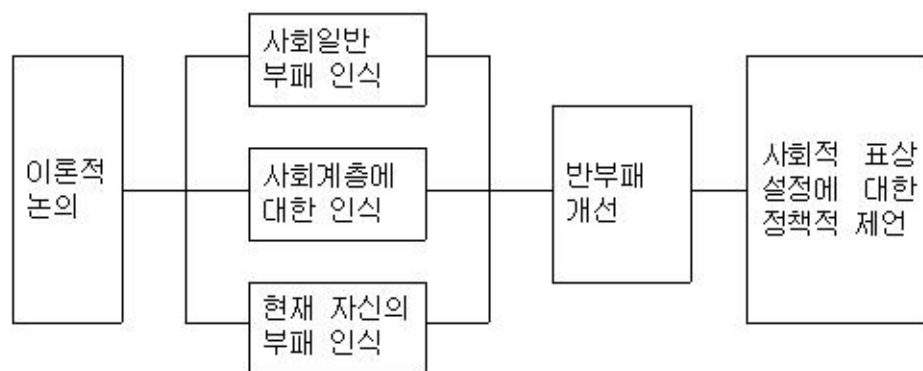
1.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부패에 대한 사회일반적인 시각과 사회적 표상으로서 역할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 그리고 향후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방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고자 한다.

설문문항은 국제청소년반부패인식지수(Youth Integrity Index, YII)의 조사항목인 도덕/윤리, 정의, 법준수, 반부패 영역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계층에 대한 부패인식 항목을 추가하여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첫 번째 항목은 대학생들이 현재 우리사회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영역과 현재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부패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세 번째로 자기 자신들의 사회정의, 법준수 등에 행동양태를 측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패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첫 번째 영역에서는 사회에 대한 표상과 신뢰에 대한 내용들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 이러한 사회적 표상들이 현재 올바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서는 우리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표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설문조사는 각 문항별로 10점 척도를 적용하여 조사하였고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값을 10점은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값을 의미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대상은 충청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의 선정은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

하여 샘플링하였고 설문 조사기간은 2009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각 지역 거점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즉 충남 천안과 서산, 충북의 청주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전지역은 충남대와 한남대에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조사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원은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과 충북대학교 박사과정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설문조사원을 통하여 대면 면접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총 300부의 설문을 지역별로 나누어 배포하여 최종응답자는 203명으로 회수율은 67.7% 였다.

<표 1> 대학생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 설문 문항

영역	설문내용	Cronbach α
1. 일반적 사회의 부패인식	1) 현재 우리 사회의 부패 수준 ① 부패증감에 대한 인식 ② 부정부패 만연정도 ③ 선진사회와의 비교	0.586
	2) 지도층에 대한 인식 ① 지도층의 부패척결의지 ② 기성세대 청렴성에 대한 인식	0.545
	3) 우리사회 반부패 제도 및 수용정도 ① 법제도의 합리성 ② 교육의 적절성 ③ 공직선거의 영향 ④ 시민단체의 역할 ⑤ 청소년에 대한 영향 ⑥ 부정사용에 대한 인식 ⑦ 부패수용정도에 대한 인식	0.403
2. 계층별 부패인식	① 정치계에 대한 인식	0.911
	② 경제계에 대한 인식	
	③ 교육계에 대한 인식	
	④ 법조계에 대한 인식	
	⑤ 의료계에 대한 인식	
	⑥ 공무원에 대한 인식	
	⑦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	
3. 자기 자신의 행동양식 (국제청소년 반부패인식지수 참조)	① 정의에 대한 인지	0.525
	② 도덕/윤리에 대한 인지	
	③ 법준수 인지	
	④ 반부패 행동	
4. 부패 개선 방안 인식	① 반부패 교육 강화	0.879
	② 처벌제도 강화	
	③ 지도층의 솔선수범	
	④ 반부패 제도 신설 및 강화	

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101명, 여성이 102명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로 분류한 결과도 19-21세 사이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3세 이상의 대학생들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를 비롯하여 고학년은 주로 취업이나 기타 전공에 대한 부담으로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곤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전체 설문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이 0.858로 나타나 설문문항 및 응답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항목별로는 0.403에서 0.911까지 알파값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문항이 묻고 있는 주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설문문항의 신뢰성은 검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일반적 현황

분류		빈도	유효 퍼센트	분류		빈도	유효 퍼센트
성별	남 성	101	49.8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18	8.9
	여 성	102	50.2		250만원 이하	53	26.1
	합 계	203	100.0		350만원 이하	65	32.0
					350만원 이상	67	33.0
학년	1학년	73	36.0		합 계	203	100.0
	2학년	47	23.2	연령대	19세-20세	65	32.0
	3학년	53	26.1		21세-22세	67	33.0
	4학년	30	14.8		23세-24세	38	18.7
	합 계	203	100.0		25세 이상	33	16.3
					합 계	203	100.0

2. 분석결과

1) 사회일반에 대한 부정인식 결과

사회일반에 대한 즉, 우리사회가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현재 우리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일반 인식분석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패가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인식	203	3.18	2.06	0.15	21.94	2.89	3.46
부정부패 만연에 대한 인식	203	7.73	2.22	0.16	49.63	7.43	8.04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인식	203	7.33	2.14	0.15	48.88	7.04	7.63

우선 현재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 대한 평균점수는 3.18점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가 부패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이 7.7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아직 우리 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패감소에 대한 가구 소득별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유의 확률
						하한값	상한값		
부패가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인식	150만원 이하	18	3.33	2.17	0.51	2.25	4.41	2.977	0.032
	250만원 이하	53	2.55	1.62	0.22	2.10	2.99		
	350만원 이하	65	3.15	1.81	0.22	2.70	3.60		
	350만원 이상	67	3.66	2.45	0.30	3.06	4.25		
합계		203	3.18	2.06	0.14	2.89	3.46		

일반적인 부패인식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응답자 특성과 대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패가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인식과 가구소득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소득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수준의 가정에 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가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나타냈으나 전체적인 응답의 평균이 낮아 현재 대학생들이 부패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 5> 현재 우리사회의 지도층 및 장년층에 대한 일반 인식분석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회지도층의 부패척결 도덕성에 대한 인식	203	2.37	1.82	0.13	18.55	2.12	2.62
우리사회 장년층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	203	3.73	1.79	0.13	29.71	3.48	3.98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지도층과 기성세대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특히, 지도층에 대한 평가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2.37)을 나타내고 있어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표 6> 지도층 및 장년층에 대한 인식과 응답자 특성간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유의 확률
						하한값	상한 값		
사회지도층의 부패척결 도덕성에 대한 인식	1학년	73	2.04	1.60	0.19	1.67	2.41	2.6840	0.0478
	2학년	47	2.79	2.20	0.32	2.14	3.43		
	3학년	53	2.68	1.88	0.26	2.16	3.20		
	학년	30	1.97	1.35	0.25	1.46	2.47		
	합계	203	2.37	1.82	0.13	2.12	2.62		
우리사회 장년층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	150만원 이하	18	4.00	1.91	0.45	3.05	4.95	3.2330	0.0234
	250만원 이하	53	3.72	1.86	0.26	3.20	4.23		
	350만원 이하	65	4.17	1.75	0.22	3.74	4.60		
	350만원 이상	67	3.24	1.64	0.20	2.84	3.64		
	합계	203	3.73	1.79	0.13	3.48	3.98		

우리 사회의 지도층의 부패척결과 도덕성에 대한 인식과 우리사회 장년층의 청렴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의 결과 사회지도층의 부패척결 인식 분석에서는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특히 고학년의 인식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장년층의 청렴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응답은 가구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현재 우리사회 부패해소를 위한 제도 및 수용정도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법제도의 합리성	203	3.30	1.85	0.13	25.47	3.04	3.56
부패 교육의 적절성	203	3.78	2.34	0.16	23.02	3.45	4.10
부패해소를 위한 공직선거의 효과	203	4.11	1.81	0.13	32.46	3.86	4.36
시민단체 사회참여를 통한 부패해소 인식	203	5.83	2.16	0.15	38.51	5.53	6.13
지도층 및 장년층의 부패가 청소년범죄에게 미치는 영향	203	6.41	2.56	0.18	35.68	6.06	6.77
성공을 위한 부정 사용에 대한 인식	203	5.92	2.40	0.17	35.15	5.58	6.25
우리사회의 부패 수용에 대한 평가	203	3.68	2.01	0.14	26.11	3.40	3.96

현재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합리성, 교육의 적절성,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통제시스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결과는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부패해소를 위한 법제도에 대해서 대상자 전체의 응답 평균은 3.30점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부정부패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3.78점으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패해소 및 행정에 대한 통제를 위한 선거인식은 4.11점,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서는 5.83점으로 다소 높은 인식을 보였고 공직선거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특히, 지도층과 장년층의 부패가 청소년들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범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사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패문제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표상계층에 대한 부패인식 결과

사회적 계층에 따른 부패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정치계층이 가장 부패한 계층으로 여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문응답은 1점이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점수이며 10점이 가장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점수를 체크하도록 하여 정치계층 전반에 대한 평가는 8.803점으로 가장 높았고 하위 단위로 정당 8.537점, 정치인 8.862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층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경제계층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은 7.729점으로 정치계층 다음으로 높았다. 하위 단위로 대기업에 대한 부패인식정도가 중소기업에 비해 높았는데 8.473점으로 중소기업의 6.296점보다 2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부패했다고 느끼고 있는 응답도 6.020점으로 나타나 경제계층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교육계층에 대한 분석으로 전반적인 점수는 6.571점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이 사교육을 담당하는 계층보다 덜 부패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법조계층에서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는데 6.611점으로 상대적으로 사법부와 경찰에 비해 부패정도가 높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의료계층에 대한 분석에서도 6.256점으로 상대적으로 평균이상의 값을 나타내었고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에 있어서는 직위가 높은 고위공무원계층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현재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인 공무원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패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측면은 가능한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부패인식 평가에서는 4.704점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시민사회의 공익을 실현하는 단체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부패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연예계와 군인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은 최근의 연예계에 대한 뉴스와 군납에 대한 비리 등에 대한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우리 사회 구성 계층에 대한 부패인식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치계	203	8,803	1,668	0,117	75,186	8,572	9,034
정당	203	8,537	1,695	0,119	71,752	8,302	8,772
정치인	203	8,862	1,586	0,111	79,610	8,643	9,082
단체장 및 장·차관 등 정무직	203	8,079	1,881	0,132	61,192	7,818	8,339
경제계	203	7,729	1,703	0,120	64,650	7,493	7,965
대기업	203	8,473	1,781	0,125	67,789	8,226	8,719
중소기업	203	6,296	1,937	0,136	46,296	6,027	6,564
노동조합	203	6,020	2,182	0,153	39,303	5,718	6,322
교육계층	203	6,571	1,760	0,124	53,198	6,328	6,815
공교육	203	5,970	2,216	0,156	38,390	5,664	6,277
사교육	203	7,305	2,055	0,144	50,650	7,021	7,590
법조계	203	6,685	1,955	0,137	48,725	6,414	6,955
사법부	203	6,458	2,121	0,149	43,390	6,165	6,752
검찰	203	6,611	2,245	0,158	41,952	6,300	6,922
경찰	203	6,463	2,190	0,154	42,055	6,160	6,766
의료계	203	6,256	2,052	0,144	43,436	5,972	6,540
고위공무원	203	7,872	1,773	0,124	63,275	7,627	8,117
국가공무원	203	6,936	1,945	0,137	50,808	6,667	7,205
지방공무원	203	6,320	1,963	0,138	45,879	6,049	6,592
시민단체	203	4,704	2,044	0,143	32,786	4,422	4,987

3) 자기 자신의 부패에 대한 인식 결과

현재 자신이 입장에서 상황에 따른 외향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국제투명성기구의 청소년 반부패 인식지수에 사용된 설문항목을 준용하여 질문문항을 수정하여 조사하였다.

정의에 대한 인지, 도덕/윤리에 대한 인지, 그리고 법규 준수에 대한 윤리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였는데 우선 정의에 대한 행동에 대한 질문으로 내부고발과 관련된 질문문항을 설정하였고 정의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인한 이득이 크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다. 그리고 도덕/윤리에 대한 질문으로 과정상 부정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반부패에 대한 행동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뇌물이나 청탁을 할 외향에 대해서 물었다.

분석결과 부정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산술적인 평균값을 넘은 질문으로 부정으로 인한 손해보다 소득이 크다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응답 값이 5.212점으로 높았고 청탁이나 뇌물을 사용할 외향이 있다는 응답이 4.704점이었다. 하지만 부정을 알게

되었을 때 내부고발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5.798점으로 나타나 반부패에 대한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2008년 청소년 반부패 인식도 조사 결과에 나타난 뇌물공여에 대한 반부패 의식 점수가 평균 6.71점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충청권 대학생들의 반부패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부정행위가 정치인 등의 부정행위 등과 비교하였을 때 사소한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적 환경에 따라 부정과 관련된 엄격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응답자 자신의 부패인식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정으로 인한 손해보다 소득이 크다면 부정행위 방법 사용	203	5.212	2.537	0.178	29.272	4.861	5.563
자신의 부정행위와 정치인 등의 부정행위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사소하다	203	4.493	2.652	0.186	24.136	4.126	4.860
과정상 부정이 있더라도 결과상 문제없다면 부정사용할 의향	203	3.778	2.294	0.161	23.467	3.461	4.096
청탁이나 뇌물 사용의향	203	4.704	2.612	0.183	25.660	4.343	5.066
부정을 알게 되었을 때 내부고발 의향	203	5.798	2.248	0.158	36.749	5.487	6.109

현재 자신의 부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남녀의 인식비교에서는 부정으로 인한 손해보다 소득이 크다면 부정행위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남학생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과정상 부정은 문제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도 남학생이 더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직업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청탁이나 뇌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응답자 자신의 부패인식에 대한 남녀비교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부정으로 인한 손해보다 소득이 크다면 부정행위 방법 사용	남성	101	5.34	2.93	14.62	0.00
	여성	102	5.09	2.08		
자신의 부정행위와 정치인 등의 부정행위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사소하다	남성	101	4.90	2.83	2.83	0.09
	여성	102	4.09	2.41		
과정상 부정이 있더라도 결과상 문제없다면 부정사용할 의향	남성	101	4.39	2.76	35.08	0.00
	여성	102	3.18	1.50		
청탁이나 뇌물 사용의향	남성	101	5.27	2.88	10.27	0.00
	여성	102	4.15	2.20		
부정을 알게 되었을 때 내부고발 의향	남성	101	5.66	2.32	0.42	0.52
	여성	102	5.93	2.17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부패인식과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양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 부패인식과의 특정한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한 생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약한 음의 관계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수간의 상관성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결과상 문제가 없더라도 청탁이나 선물의 제공 등이 서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부정행위 방법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패와 연관될 수 있는 개연성을 나타내었고 내부고발의 변수는 음의 관계가 나타나 내부고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부정행위 방법을 사용할 의사를 자제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11> 사회의 일반적 부패인식과 응답자 자신의 부패인식에 대한 상관관계

구분		2	3	4	5	6
1	Pearson상관계수	0.235**	0.215**	0.497**	-0.231**	-0.037
	유의확률 (양쪽)	0.001	0.002	0.000	0.001	0.596
	N	203	203	203	203	203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주 : 1=부정으로 인한 손해보다 소득이 크다면 부정행위 방법 사용

2=자신의 부정행위와 정치인 등의 부정행위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사소하다

3=과정상 부정이 있더라도 결과상 문제없다면 부정사용할 의향

4=청탁이나 뇌물 사용의향

5=부정을 알게 되었을 때 내부고발 의향

6=우리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부패인식 평균값

4)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인식 분석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라고 응답이 가장 높은 점수인 9.039 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정으로 생긴 이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90으로 높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부정을 밝힌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8.823점,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734점,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부정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8.23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현재의 사회적 표상계층으로 볼 수 있는 사회지도층들의 부정과 부패가 현재 대학생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도층과의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반부패에 대한 접근이 지도층의 청렴에 대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반부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t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청소년 교육강화	203	6.985	2.454	0.172	40.548	6.646	7.325
청렴교육강화	203	7.862	2.405	0.169	46.582	7.529	8.195
지도층 솔선수범	203	9.039	1.726	0.121	74.624	8.801	9.278
처벌규정강화	203	8.734	2.024	0.142	61.478	8.454	9.014
부정이익 환수	203	8.990	1.808	0.127	70.864	8.740	9.240
내부고발자 보호	203	8.823	1.985	0.139	63.339	8.548	9.097
정보공개 강화	203	8.232	2.106	0.148	55.683	7.940	8.523
검찰 및 경찰 독립	203	7.557	2.374	0.167	45.359	7.228	7.885
언론감시 강화	203	7.217	2.754	0.193	37.331	6.836	7.598
정부캠페인 강화	203	6.892	2.571	0.180	38.186	6.536	7.247
옴부즈만 제도강화	203	7.084	2.227	0.156	45.326	6.776	7.392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성 강화	203	7.291	2.348	0.165	44.236	6.966	7.616
국민신문고 활성화	203	7.882	2.172	0.152	51.697	7.581	8.182

우리 사회의 부패상황에 개선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비교에서는 처벌규정강화와 검찰 및 경찰의 독립성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인식은 남녀의 차이가 없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 13> 반부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의 성별 비교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F	유의 확률
청소년 교육강화	남성	101	7.43	2.71	0.27	10.22	0.00
	여성	102	6.55	2.09	0.21		
공무원 등 청렴교육강화	남성	101	7.87	2.72	0.27	8.38	0.00
	여성	102	7.85	2.06	0.20		
지도층 솔선수범	남성	101	8.83	1.98	0.20	6.87	0.01
	여성	102	9.25	1.41	0.14		
부정이익 환수	남성	101	8.85	2.03	0.20	5.57	0.02
	여성	102	9.13	1.55	0.15		
내부고발자 보호	남성	101	8.60	2.17	0.22	7.08	0.01
	여성	102	9.04	1.76	0.17		
정보공개 강화	남성	101	7.99	2.30	0.23	4.46	0.04
	여성	102	8.47	1.88	0.19		
정부캠페인 강화	남성	101	6.91	2.82	0.28	6.39	0.01
	여성	102	6.87	2.31	0.23		
옴부즈만 제도강화	남성	101	7.06	2.40	0.24	5.83	0.02
	여성	102	7.11	2.05	0.20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성 강화	남성	101	7.02	2.56	0.25	7.11	0.01
	여성	102	7.56	2.10	0.21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공무원 청렴교육강화, 정부캠페인 강화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지도층 솔선수범, 부정이익 환수, 내부고발자보호, 정보공개강화, 옴부즈만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남학생은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지지를 여학생은 사회지도층을 솔선수범, 제도강화에 더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표상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기성세대 및 지도층, 그리고 각계를 대표하는 계층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학생들 즉, 미래세대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미래세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향후 우리 사회의 반부패에 대한 노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비합리적인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본 연구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부패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

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부정한 부분을 고발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와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높은 교육적 성취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재 양성에는 한국의 기성세대가 이룩한 경제발전의 특혜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생들은 단기에 대한 목표가 대부분으로 대학입시 이후, 또는 직장취업 이후에 대한 단편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성취에만 초점을 둔 것들이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가 한다는 청사진이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에게는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목표설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삶의 표상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많은 계층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국가 전체적인 상징에 대한 부재와 역할 모델로 삼을 지도층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국가전체에 대한 표상과 상징은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Almond & Powell이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상징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국가차원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정책의 순응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인들의 표상을 바르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지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전국적인 차원의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보다는 특정지역의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대표성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표상이라는 개념이 부패와 그리고 사회계층, 집단에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표상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계층과 연관된다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표상과 부패의 연관성, 그리고 영향관계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의 연구들도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부패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조사대상국의 순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반부패에 대한 개선은 일정 계층이 담당하는 것이 아닌 국가전체, 그리고 향후 미래 세대가 공감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진정한 사회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는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바르게 제시하고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경쟁력평가원(2005), 2005년도 IMD·WEF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 김명언·김의철·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8권 1호: 181-204.
- 김요성·김의철·박영신(2002), 한국 정치지도자의 문제점과 자질에 대한 청소년의 표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의철·박영신(2005), 북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신뢰, 관계와 시민 사회: 심리, 사회, 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 김홍희(2005), 협동거버넌스에서의 부패, 신뢰, 그리고 책임성, 한국행정논집 17(4).
- 박용치·이충민(2005), 부패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6(1):1-38.
- 박영신·김의철·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Vol.10, No.3.
- 박영신·김의철(2005),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11권 3호:91-119.
- 유광민·김기완·김남조(2007), 관광개발에서 주민태도연구의 비판적 고찰:사회교환이론과 사회표상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제19권 제2호.
- 윤광재(2003),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서울:한국행정연구원.
- 윤영진·김의철·박영신(2004),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한국사람과 공공기관 및 국가에 대한 신뢰 분석, 사회문제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이상환(2004), 국제적 부패 관련 경험적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부패지수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2(1): 139-163.
- 윤광재(2005),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부패학회보」 10(3): 69-88.
- 진종순·서성아(2007),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 차종천
- 최순영(1987), 귀인이론의 비평적 고찰 및 개인-사회적 수준으로서의 확대모형 제안, 사회심리학연구, 3(2), 161-180.
- 한국행정연구원(2005),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패문제 해소방안 연구」.
-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본부(2008), 2008년 청소년 반부패 인식도 조사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Barth, Thomas J. (1996), "Administering in the Public Interest : The Facilitative Role for Public Administrators," In Gary L. Wamsley, James F. Wolf (eds.), *Re-founding Democratic Public Administration : Modern Paradoxes, Post-modern Challenges*, London: Sage pub.

- Fredline, Elizabeth & Faulkner, Bill(2000), Host community reaction-a cluster analysi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 Fredricson, H. G. (1997), *The Spirit of Public Administration*, Sanfrancisco: Jossey-Bass.
- Forest J. Jourden,(1991), Self-Regulatory Mechanisms Governing the Impact of Social Comparison o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ume 60, Issue 6, 941-951.
- K. Kashima, T. Ishimaru, H. Okamura, H. Suginami, K. Ikuma, T. Murakami, M. Iwashita, K. Tanaka(2004), Familial risk among Japanese patients with endometriosis,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 Obstetrics*, Volume 84, Issue 1.
- International Management of Development(2006),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6*.
- World Economic Forum(2006),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6-200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 TI(2006), *Report o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06*.
- Pearce, P.L., Moscardo, G., G.F.(1996), Tourism dependence and resident attitud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2):391-411
- Porter,M,E(2003), "Building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Prosperity: Findings from the Microeconomic competitiveness Index", *In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1-200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 TI(2006),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6*.
- TI(2006), *Using the Right to Information as an Anti-Corruption Tool*.